

골든타임을 잡아라! 전화금융사기 대처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노인들이 당하기 쉬운 것으로 치부되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하지만 이제는 나날이 그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 골든타임 잡는 전화금융사기 대처법을 알아보자.

글: 편집부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감독원



예방TIP

- 1.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 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는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
-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전화금융사기**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고 하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엔 절대로 응해선 안 된다.
- 3. 자녀 납치 전화금융사기에 미리 대비할 것**
미리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둘 수 있도록 한다.
- 4.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내용의 진위 확인 필요**
최근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는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하자.



피해 예방의 골든타임, 30분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3명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30분 이상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25.9%인 161명만이 30분 이내에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한편, 은행 전산 시스템상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면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해당 계좌 현금 인출이 30분 동안 지연된다. 이 골든타임 내에 피해를 알아채야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지나 최소 30분~최장 24시간 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인지했으며, 하루가 지난 뒤에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도 상당수였다. 연령에 따라 피해를 알아차리는 데 걸린 시간도 달랐다. 50·60대 이상은 30분 이내에 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에 불과했다. 다른 연령대는 30%를 넘었다. 전화금융사기 수단은 문자를 통한 접근이 45.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전화(35.2%), SNS 메신저(19.7%) 등이었다. 사기 수법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금리대출 빙자 사기가 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 사기가 20.5%였다.

‘일단 의심하라’,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국제 조직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발신 경로로 사기 대상자에게 접근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 과정에서도 이른바 ‘대포 통장’을 이용한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통신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방지 협력도 요구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스스로가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빨리 파악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두어야 한다.